

남원 선원사 시왕도의 태극기 연구

송명호*

• 목 차 •

- I. 머리말
- II. 남원 선원사 시왕도의 현황과 화기판독
- III. 증명 진응혜찬과 화승 만총 고찰
- IV. 태극기와 시왕도 변성대왕 관모
- V. 맺음말

* 전 국가유산청 근대문화유산 전문위원. 태극기 전문가.
© 『大覺思想』 제42집 (2024년 12월), pp.99-133.

한글요약

이 논문은 남원 선원사의 시왕도 관모에 그려진 태극기의 시대적 배경과 의의를 살펴보고 향후 대책과 활용방안을 모색한 내용이다.

시왕도란 사람이 죽어서 저승에 갔을 때 살아생전의 죄를 밝혀서 극락행과 지옥행을 결정짓는 시왕들의 엄정한 심판 장면을 표현한 불화의 일종이다. 이 시왕도는 1917년에 조성되어 105년 만에 발견된 것으로 정형 4괘와 태극문양을 갖춘 태극기가 그려진 불화이다. 조성 시기가 1911년 조선총독부 사찰령(寺刹令)에 의해 불교가 탄압당하고, 1912년 조선총독부칙령 제19호에 의해 오로지 일장기만을 게양하도록 강제함으로써 태극기가 말살 당하였던 엄혹한 일제강점기였다.

남원 선원사 시왕도의 의의는 엄혹한 일제강점기에 시왕도를 조성하면서 위협을 무릅쓰고 변성대왕 관모에 고의적으로 태극기를 몰래 그려 불교계의 항일 정신과 민족의 정체성을 극명하게 표현한 것이라 하겠다. 변성대왕이 관장하는 지옥은 도산지옥으로 칼로써 남을 괴롭힌 죄인에게 칼로 된 길을 걷게 하여 고통을 주는 시왕이다. 즉 남의 나라를 무기로 찬탈한 죄는 반드시 무기로 심판받을 것이라는 경고로 여겨진다. 이 시왕도의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형 4괘와 태극문양을 갖춘 태극기 그림이 시왕도에서 발견된 것은 남원 선원사가 최초이다.

둘째, 화승 만총과 증명법사 진응혜찬이 뜻을 같이하여 위협을 무릅쓰고 시왕도의 관모에 고의적으로 태극기를 몰래 그려 불교계의 항일 정신과 민족의 정체성을 표현하였다.

셋째, 보존과학적 방법으로 물감분석 및 채색 기법을 해석한 결과 1917년 시대의 물감과 채색 기법이 동일한 것으로 입증하였다.

향후 대책과 활용방안으로는 첫째, 시왕도에 태극기가 그려진 희귀성과 가치, 진응혜찬이 ‘증명’한 점을 고려하여 국가유산으로 보존할 것과 미발굴 태극기 그림 불화를 찾는 방안도 강구토록 하였다. 둘째, 불교회화 측면, 남원의 의병활동과 항일정신을 일깨우는 역사적 측면, 일제강점기 동안 태극기의 변천사까지 아우르는 지속적인 연구를 제안하였다. 셋째, 시왕들의 독특한 캐릭터를 소재로 불교 만화·애니메이션·영화·소설, 시왕도 태

극기 스토리텔링 등 다양한 콘텐츠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주제어

남원 선원사, 시왕도, 태극기, 화승 만총, 진응혜찬, 한용운, 백초월 · 변성대왕, 호은대율사비, 사찰령, 매천 황현, 김택영, 진관사 태극기.

I. 머리말

2023년 2월 하순 언론매체들이 남원 선원사(南原 禪院寺)에서 발견된 「지장보살과 시왕정(地藏菩薩及十王幀)」(이하 “남원 선원사 시왕도”라 함)에 그려진 태극기에 대한 기사를 대서특필하여 인구회자 되었다. 그 중 몇몇만 소개하자면, 「일제강점기 탕화 속 그려진 태극기, 항일운동 일환」¹⁾, 「불화에서 태극기가 처음 발견」²⁾, 「남원 선원사서 ‘항일독립 의지’ 담긴 태극기 그림 발견」³⁾, 「불교 탕화에 몰래 그렸다」⁴⁾, 「불화 속 ‘숨은 태극기’ 105년 만에 발견」⁵⁾, 「선원사 불화서 태극기 그림 발견」⁶⁾, 「100년 넘은 탕화 속 태극기 확인 ... 불교 항일정신 담겨」⁷⁾ 등이다.

시왕도(十王圖)란 사람이 죽어서 저승에 갔을 때 살아생전의 죄를 밝혀서 극락행과 지옥행을 결정짓는 시왕들의 엄정한 심판 장면을 표현한 불화의 일종이다. 보편적으로 시왕과 권속의 배치·의상의 모양과 색상 등 기법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특별한 점을 발견하기란 쉽지 않다.

그런데 2022년 11월 1일 남원 선원사 운문(雲門) 주지가 명부전에서 한참 지장보살 정근을 하고 마치려는데, 시왕도의 시왕 관모에 태극기가 눈에 띄어 깜짝 놀랐다고 한다. 범상치 않다는 것을 감지하고서 태극기에 대한 전문적인 견해를 얻기 위해 필자를 수소문하여 전자우편을 보낸 것이다.⁸⁾ 필자가 운문 주지로부터 전자우편을 받은 날은

1) 연합뉴스 TV, 2023.2.21, 오후 5시 뉴스.

2) MBC, 오후 7시 뉴스투데이, 2023.2.22.

3) 『법보신문』, 교계, 2023.2.22.

4) 『동아일보』, 문화, 2023.2.22.

5) 『조선일보』, 문화, 2023.2.22.

6) 『한겨레신문』, 사회종교, 2023.2.22.

7) BBS News, 불교, 2023.2.22.

2022년 11월 18일이었고 낯선 발신인이었지만 사연을 읽어 내려가는 조목조목마다 심장에 뜨거운 감동을 받았다.

저는 남원 선원사의 주지 소임을 보고 있는 운문입니다. 제가 기도하던 중에 지장보살님 뒤에 모셔진 시왕도 탕화에서 이 태극기를 발견했는데요,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알고 싶어서 이렇게 전자우편을 드립니다. 이 탕화는 1917년에 진응혜찬이 증명법사로 증명을 해서 제작한 탕화인데, 제가 알기로 진응혜찬은 만해 한용운 스님과도 각별한 사이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현존하는 탕화에 이렇게 태극기가 그려진 예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있다 하더라도 1917년 이라는 엄혹한 시기에 그려진 예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을 구하고 싶습니다.

남원 선원사에서 운문 합장

이 시왕도는 태극기가 그려진 희귀한 불화로써 1917년에 조성되어 105년 만에 처음으로 발견된 불교 문화유산이다. 그동안 명부전에서 기도한 불자들이 수만 명이었을 것인데, 그때서야 운문 주지의 눈에 발견되었다는 것은 삼보의 계시가 아니었을까 감탄해 마지않는다. 시왕도에 그려진 태극기의 조성 시기가 일제강점기이었다는 점은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하고 시사한 바가 크다.

이에 본 고의 연구 목적은 남원 선원사 명부전에 봉안된 시왕도에서 최초로 발견된 태극기 그림에 대한 시대적 배경과 의의를 살펴보고, 향후 대책과 활용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선행 연구로 2차 자료⁹⁾를 통해 조사된 1900년 이후 시왕도 23점(15번 정토정 6점임)을 <표 1>과 같이 살펴보았다. 연구 방법은 <표 1>의 자료를 토대로 시왕도에 태극기 그림의 유무를 확인하고 8

8) 필자는 2008~2021년까지 국가유산청(전 문화재청) 근대문화유산 전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보물 태극기 3점 지정, 국가등록문화유산 태극기 18점을 조사·등록하는데 기여하였다.

9) 국립문화재연구소, 『한국역대서화가사전』 상·하권, 2011.

과 태극은 제외하였다. 불분명한 것은 사찰을 답사하여 그 유무를 확인하였다. 이 23점이 절대적인 표본이 아니라는 것을 미리 밝혀둔다.

<표 1> 1900년 이후 시왕도 자료

연번	명칭	주소	연대	태극기 유무· 재질규격·화승
1	오어사 시왕도	경북 영일 오어사	1900	없음. 綿 135x158.5 벽산
2	선암사 시왕도	전남 순천 송광사	1900	없음. 緞 131x100 행언
3	대흥사 지장도	전남 해남 대흥사	1901	없음. 綿 191.5x243.5 석담
4	대련사 시왕도	충남 예산 대련사	1902	없음. 綿 182x161 응탄
5	해인사 시왕도	합천 해인사 약수암	1904	없음. 緞 139.5x172 한형
6	통도사 시왕도	양산 통도사 세명암	1904	없음. 緞 118x172 완호
7	신륵사 지장도	경기 여주 신륵사	1906	없음. 綿 160x234 봉하
8	남고사 시왕도	전북 완산군 남고사	1908	없음. 綿 139x159.4 상오
9	선원사 시왕도	전북 남원 선원사	1917	있음. 棉 155.5x175.3 만종 발견: 2022.11.1.
10	쌍계사 시왕도	경기도 안산 쌍계사	1918	없음. 棉 140.5x199 김예운
11	옥천사 시왕도	전북 정읍 옥천사 명부전	1929	없음. 棉 천지인문. 춘화 답사: 2024.7.29.
12	상원사 시왕도	전북 고창군 상왕사	1920	없음. 棉 112x132 봉영
13	안양암 시왕도	서울 종로구 안양암 명부전	1924	없음. 棉 8괘(연구제외) 고산 답사: 2024.8.13.
14	용화사 시왕도	통영 용화사 관음암	1926	없음. 棉 153x155 봉주
15	정토종 시왕도 6점 (2,3,4,5,6,7대왕)	충남 공주시 마곡사 소장	1928	없음. 棉 ※ 규격과 화승은 시왕도별로 각각 다름
16	옥천사 신중도	전북 정읍 옥천사	1929	없음. 綿 129.5x183 춘화 답사: 2024.7.29.
17	마곡사 시왕도	충남 마곡사 영은암	1931	없음. 棉 162x172 몽화 답사: 2023.3.7
18	관음암 시왕도	충남 조치원 관음암	1935	없음. 棉 139.6x151.8 ?

II. 남원 선원사 시왕도의 현황과 화기판독

1. 현황

남원 선원사는 신라 도선(道詵)이 875년(헌강왕 1)에 창건한 고찰로 대한불교조계종 제17교구 본사인 금산사(金山寺)의 말사이다. 정유재란 당시 남원성을 지키던 의승군의 구국도량으로 호남지역의 대표적인 호국 사찰이었다.

그러나 치열한 전쟁과 화마로 사찰이 크게 위축되기도 하였다. 이 전쟁으로 소실됐다가 영조 때 복원됐다. 이후 선원사는 정유재란 때 남원성에서 순절한 승병과 의병, 장수 등 만인의사를 기리는 재를 봉행해왔다.

남원 선원사의 구국도량은 정유재란으로 끝나지 않고 일제강점기 항일 사찰로 그 맥이 이어졌다. 시왕도를 조성할 때 고의적으로 시왕도 관모에 태극기를 몰래 그려 봉안하였던 작정도 그 일환이었던 것이다. 모든 사찰마다 시왕도를 봉안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시왕도를 봉안한 사찰이 드물어 흔하게 볼 수 있는 불화가 아니다.

한국 불화에서 지옥도계(地獄圖系) 회화는 현왕도, 시왕도, 신중도 등 다양하지만 본 고에서는 지옥장면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표현된 시왕도를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불교에 따르면 인간의 사후 세계는 저승사자와의 만남으로부터 시작된다. 저승사자는 망자를 손으로 이끌고 시왕이 머무는 명부(冥府)로 데리고 가서 망자의 죄가 적힌 두루마리 장부를 시왕에게 전달한다. 이때부터 망자의 죄를 3년 동안 심판한다. 10명의 시왕이 3년 동안 심판하는 것은 불교에 따라 사후 첫해는 제1번~7번의 대왕이 순서대로 7일마다 제7번 심판(49齋)하고, 유교에 따라 100일 되는 날에 제8번 대왕, 사후 두 번째 기일에 제9번 대왕, 사후 세 번째 기일에 제10번 대

왕이 심판을 하기 때문이다. 불교와 유교가 결합된 사후 심판과 장례의 식이다. 그 심판의 모습이 얼마나 가혹하고 적나라하게 표현되었는지 조선시대 때는 승유억불 정책과 맞물려 사간원에서 사찰의 행하는 시왕도를 금하도록 청하기까지도 하였다.

지금 승도(僧徒)들이 서울 바깥 사찰에서 ‘시왕도(十王圖)’라고 칭하고서, 사람 형상을 괴상한 형용과 이상한 모양에 이르기까지 그리지 않는 바가 없사옵니다. 그 잔인하고 참혹한 형상을 눈뜨고 차마볼 수 없사옵니다 … 중략 … 청하건대, 서울은 사헌부에서, 외방은 각 고을에서 샅샅이 수색하여 불태우거나 헐어버리게 하고, 그중에 혹시 감히 숨겨 놓거나 혹은 몰래 숨어서 그림을 그리는 자는, 사람들에게 진고(陳告)하는 것을 허락하여 즉시 불태워 없애고서, 법에 의하여 죄를 주게 하옵소서.¹⁰⁾

사간원의 청은 비록 세종 임금의 승낙하지 않았지만 시왕도에 대한 공포스러운 시각의 단면을 보여준 사례라 하겠다. 시왕도를 불교 차원에서는 죄에 대한 심판의 깨달음을 전달하려는 메시지이겠지만,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 풍자일 수도 있고 해학일 수도 있을 것이다.

남원 선원사 시왕도는 명부전의 주 불단에 봉안되어 있는 1폭의 불화로 십대왕과 권속들이 중앙부의 지장보살상을 에워싸고 있다. <사진 1>

10) 조선왕조실록, 『세종실록 88권』, 1440년 1월 25일(음력).



향좌
시왕배치 2.4.6.8.10

향우
시왕배치 1.3.5.7.9

<사진 1> 남원 선원사 명부전의 시왕도

표구 크기는 세로 171.0cm 가로 183.8cm이고, 그림의 크기는 세로 155.5cm 가로 175.3cm이고, 소재는 면이다. 중앙부에 지장보살상을 큼직하게 그린 다음, 좌우로 대칭을 이루듯 도명존자와 무독귀왕을 중심으로 십대왕과 판관 및 녹사와 사자상과 천동·천녀 등의 권속들이 주위로 빙 둘러 배치되었다. 둥근 형태의 머리 광배와 몸 광배를 구비하고 솟아오른 청련좌(靑蓮座) 위에 결가부좌 하고 앉아 있는 본존상은 지장보살상의 전형적인 특징인 승형(僧形) 머리에 석장(錫杖)과 투명

보주(寶珠)를 들고 있는 상으로, 오른팔이 드러난 변형 우견편단(右肩偏袒) 식의 법의를 착용하였다.

위아래로 길어진 장방형 얼굴에 눈·코·입의 표현이 단정한데, 꼬리를 위로 올리고 눈썹을 높게 그려 치켜뜬 채 정면을 똑바로 응시하는 듯한 눈을 하고 약간 길어진 코에 작은 입이 근엄해 보이만, 짧은 턱수염에 끝이 위로 올라가게 표현한 팔자(八字) 모양의 콧수염을 굵게 그려 미소가 살짝 번져 나는 듯도 하다.

앞쪽으로 큼직하게 펼쳐진 귀는 옷깃에 닿을 듯 적당히 길어졌으며, 긴 얼굴에 비해 다소 짧아진 목에는 삼도(三道) 표현이 선명하다. 왼 무릎을 쇠코결련문이라고도 일컬어지는 여의두결련문(如意頭結聯紋) 형식의 띠로 묶음을 한 적색 대의(大衣)의 몸체 바탕에는 안쪽에 꽃과 덩굴이 결합된 문양을 그린 둥근 무늬를 장식하였으며, 발목에는 부채꼴의 치견(侈絹) 장식이 되어 있다. 왼 어깨에는 북부로 흘러내려 오른쪽 옆구리로 감아 들어간 청색 가사(袈裟)를 묶은 금속제 고리 장식이 보이며, 가슴 부위에는 끝부분에 붉은 술이 달린 큼직한 영락이 장식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지장보살상을 중심으로 향우(向右)는 도명존자상(道明尊者像)을 중심으로 권속들은 몸 광배 바깥쪽에서 지장보살상을 향해 합장하고(청년 비구 모습도 보임) 있으며, 아래쪽에는 홀수 시왕 즉 제1, 3, 5, 7, 9대왕을 배치하고, 위쪽에는 판관(判官)과 녹사(錄事) 및 천동(天童)·천녀(天女)와 사자상(使者像)을 배치하였다. 향좌(向左)는 무독귀왕(無毒鬼王)을 중심으로 권속들 역시 몸 광배 바깥쪽에서 중앙을 향하고 서서 합장하고 있으며, 아래쪽에는 짝수 시왕 즉 제2, 4, 6, 8, 10 대왕을 배치하였고, 위에는 판관과 녹사 및 천녀와 사자상을 배치하였다. 태극기 그림이 그려진 시왕은 <사진 1>의 왼쪽 ○로 표시된 제6번 변성대왕이다.

2. 화기 판독

화기란 그림을 완성한 후에 남긴 기록이다. 화기는 대체적으로 조성발원문(造成發願文), 용상방(龍象榜), 대시주자 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림에 대한 신뢰이자 보증서이다. 조성발원문이란 불화 조성 목적, 연대, 종류, 사찰 명칭, 봉안 장소, 증명, 화승 등을 상세하게 기록한 내용이다. 용상방이란 승려에게 소임을 부여한 분장표이다. 시주자는 불화 조성에 소요된 금전을 시주한 불자 혹은 독지가들의 명단이다. 우측 화기는 시왕도의 조성발원문이 묵서되어 있고, 좌측 화기는 ‘독판대시주’ 명단이 묵서되어 있다.

화기만 봐도 불화의 조성 연대며 목적이며 과정 등 이력을 환히 알 수 있다. 화기의 유무에 따라 불화의 신뢰와 가치를 인정받음으로 그만큼 중요하다. 그럼 남원 선원사 시왕도의 화기를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사진 2> 우측 화기이다.

大正六年丁巳十一月五日 爲始南原郡萬行山禪院寺 地藏菩薩及十王幀新造成
十七日向奉安于大天堂. 證明 震應慧燦, 誦呪 守日, 持殿 英喆, 金魚 片手
萬聰, 尙許·幸恩·奉仁·明眞·成烈·法祥, 鍾頭 應守, 供養主 炯根·相洙,
都監 品善, 別座 斗滿, 隨喜結緣 成贊, 斗永·泰順·五峰, 時住持 水龍琪善,
化主 徐氏桂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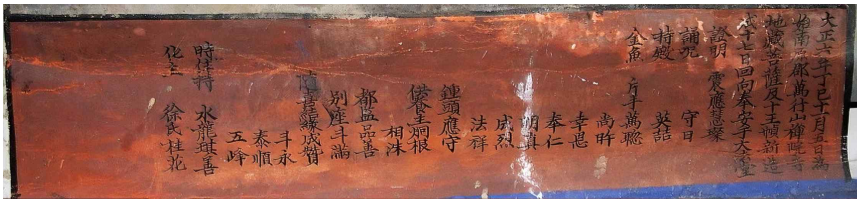
대정 6년(1917) 정사년 11월 5일, 남원군(南原君) 만행산(萬行山) 선원사(禪院寺)의 지장보살과 시왕(十王)의 탕화(幀畫)를 새로 조성하기 시작하여 17일에 회향을 하고 대법당에 봉안하였다.¹¹⁾ 증명 진응혜찬, 송주(誦呪) 담당은 수일, 지전(持殿) 담당은 영철, 금어편수(金魚片手)는 만충, 동참은 상오·행은·봉인·명진·성열·법상, 종두(鍾頭) 담당은 응수, 공양주(供養主) 담당은 형근·상수, 도감(都監)은 품선, 별좌(別座) 담당은 두만, 수희결연(隨喜結緣) 담당은 성찬·두영·태순·오봉, 시주지(時住持) 수룡

11) 한국고전번역원의 고전자문서서비스를 받았음.

기선, 화주(化主)는 서 씨 계화

화기 발원문에서 보았듯이 1917년 11월 5~17일 동안 남원 선원사 시왕도가 조성되어 낙성식을 갖고 대법당에 봉안하였다. 화승 만총이 선암사로부터 시왕도를 주문받아 진응혜찬의 증명(감독)아래 책임지고 조성하였으며 동참 화승은 상오·행은·봉인·명진·성열·법상이었다.

당시 주지 수룡기선(水龍琪善)이 서계화(徐氏 桂花) 보살의 시주를 받아 금어 편수 만총의 지휘 아래 제작했다는 내용이다. 주지 수룡기선은 ‘蔡水龍’으로 1912년(대정원년) 10월 15일에 인가되어¹²⁾ 1922년(대정11년) 1월 12일에 임기 만료되었다.¹³⁾



<사진 2> 우측 화기

화기의 용어를 풀이해 보겠다. 회향(回向) - 낙성, 증명(證明) - 불화의 도상이 교리에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역할, 송주(誦呪) - 불화 조성의 성공을 위해 염불하는 역할(독송), 지전(持殿)-불화를 조성하는 법당 담당으로 ‘知殿’으로도 표기한다. 금어(金魚) - 불화의 미적·예술적 채색 위주의 화승, 편수(片手) - 불화 조성시 책임 화승. 금어편수(金魚片手) - 첫머리 ‘금어’ 다음에 ‘편수’가 따르면 불화를 직접 주문하고 조성한 총 책임 화승을 의미한다. 종두(鍾頭) - 불화 조성의

12) 한국사데이터베이스, 한국근대사DB, 『조선총독부관보』(영인본) 제94호, 1912.11.21

13) _____, 한국근대사DB, 위의 책, 제2992호, 1922.8.2

성공을 위해 타종하는 스님, 공양주(供養主) - 화승들의 공양을 준비하는 역할, 도감(都監) - 불화 예불 의식 등 제작의 총감독, 별좌(別座) - 부처님 공양 담당, 수희결연(隨喜結緣) - 불화 조성 관련 동참과 찬조를 했거나 또는 임무를 맡은 승려, 시지주(時住持) - 불화 조성 당시 주지, 화주(化主) - 불화 조성 물품을 조달한 보살을 말한다.

화기에 묵서된 ‘證明 震應 慧燦’(증명 진응혜찬)은 상징적 의미가 매우 크다. 증명이란 삼장(三藏)과 선리(禪理)에 밝은 큰스님이 사찰의 법회나 불사 때 법대로 바르게 진행하도록 확인하고 감독 하는 일로 증명법사라고도 한다.¹⁴⁾ 또는 “불화나 개금 제작의 총책임을 맡은 승려로서 불화나 개금이 경전의 법식에 맞게 제작되었는지 감독하는 임무를 맡은 승려이다.”라고도 말한다.¹⁵⁾ 따라서 증명법사는 선(禪)과 교(敎)에 능통하고 법요 의식에 대한 이해가 깊어 제반 법회가 부합되는지 등 진행에 관한 감독과 자문에 응할 수 있는 식견을 가진 승려라 하겠다.

<사진 3>의 좌측 화기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 시왕도를 조성함에 있어서 독판대시주의 명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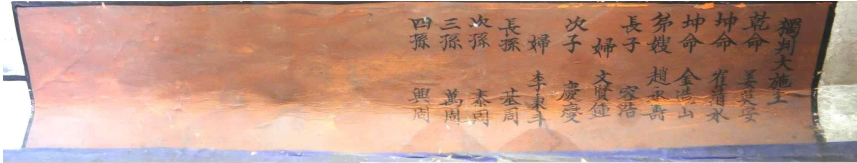
獨判大施主, 乾命 姜英安, 坤命 崔清水, 坤命 金造山, 弟嫂 趙永壽, 長子 容浩, 婦 文賢鍾, 次子 慶燮, 婦 李秉斗, 長孫 基周, 次孫 泰周, 三孫 萬周, 四孫 興周

단독으로 통 큰 시주를 한 강영안(姜英安)과 그의 두 아내(坤命), 제수, 아들, 며느리, 손자 등 12명의 가족이다. 시왕도를 조성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았을 것인데 꽤 부유한 유지였던 것 같다. 명단을 보니 제수 이름은 있지만 동생 이름이 없다. 강영안과 가족들이 지장시왕도 조성

14) 송천 스님 외, 『한국의 불화 화기집』, 도서출판 성보문화재연구원, 2011, p.1504.

15) 김정희, 『불화』, 돌베개, 2009, p.42.

에 시주자로 나선 것은 부유한 것도 있었겠지만, 아마도 먼저 이승을 떠난 동생의 극락왕생을 빌기 위한 마음도 담은 듯 하다.



<사진 3> 좌측하기

Ⅲ. 증명 진응혜찬과 화승 만총 고찰

1. 증명 진응혜찬(證明 震應慧璨)

1) 대강백 진응혜찬

진응혜찬의 세속 이름은 동해(東海)이나 호적에는 진진응(陳震應)이다. 그는 1873년 12월 24일, 전남 구례군 광의면 대전리에서 출생하였다. 15세 때인 1887년 화엄사 봉천암(鳳泉庵)으로 출가한 후 1888년 7월 3일 화엄사 박하월에게 사미십계를 수지하고 혜찬(慧璨)이라는 법명을 받아 65여 년 동안 번뇌하다가 1942년 1월 31일 입적하였다. 진응혜찬의 삶을 살펴보면 대부분 교학에 매진하였음을 알 수 있다.¹⁶⁾ 1890년까지는 박하월에게서 외전인 眞寶를 비롯해서 사교과 중에서 능엄경, 기신론을 배웠다. 그 무렵(1890.2.25~1893.1), 그는 천은사 修道庵 講堂에서 鄭圓華로부터는 사교과정의 반야경, 원각경, 법화경을 배웠다. 그리고나서, 1893년부터 1895년 1월까지의 선암사 大乘庵 講堂

16) 김광식, 「근현대 화엄사의 사격과 진진응·이동현」, 『대각사상』 제18집, pp.154-155.

에서 金擎雲으로부터는 대교과 과정의 화엄현담, 삼현십지, 佛祖通載 등을 마쳤다. 1895년 2월부터는 1년간 구암사 강당에서 裴雪乳로부터 선문염송과 전등록 등을 배웠다. 이렇듯 다양한 교학을 이수한 이후부터는 전문 강원에서 후학을 양성하였다. 여기에서 그와 연관된 교육 활동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897. 2 ~ 1899. 8	천은사 수도암 강사
1900. 8 ~ 1900. 8	화엄사 보적암 강사
1900. 8 ~ 1906.12	천은사 수도암 강사
1907. 2 ~ 1907.12	대원사(산청) 강당 강사
1908. 8. 20 ~	화엄사 내, 사립 신명학교 설립
1909. 4 ~ 1910. 11. 1	신명학교 교원
1910. 11. 15 ~ 1924. 6	신명학교 교장

이렇듯 진응혜찬의 강사 이력에 대해선 “한국불교의 근현대 강맥(講脈)은 한영정호(漢永鼎鎬, 1870~1948)와 진응혜찬(震應慧燦, 1873~1942)에게서 시작됐다 할 정도로 ‘북한영 남진응’으로 불릴 만큼 영향력이 컸다”고 평가한다.¹⁷⁾

2) 신망과 항일 교분관계

진응혜찬과 한용운의 항일 교분관계는 돈독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1912년 12월 17일 만해 한용운이가 부산부 범어사에서 전남 구례군 화엄사의 진응혜찬에게 보낸 엽서의 내용이다.<사진 4>

積年阻候 伏悵曷已 伏未審寒_互 講體萬安 伏溯伏溯 生 布教次 今七月 往滿洲矣不幸 而路逢強盜 被六穴 砲三發 一生於萬死之中 而今纔還國 劫後餘毒 尚未快復耳 奈宿障非輕 所志所事 百無一成 動輒得咎 幾無容身之地 且幾死於海外之爆彈 夫人間 何者非夢 半世夢 夢一何凶也 解夢之訣云凶則吉 以是

17) 『불교신문』, 2008.7.2, 「기획연재, 21 진응혜찬」

自慰 會合何時 臨書增悵

오랫동안 소식이 끊겼으니 그 아쉬움 어찌 한량이 있겠습니까. 추위에 강론 진행하시는 몸은 평안하신지요? 그렇고 그렇습니다. 소생은 포교차 이번 7월에 만주에 갔었는데 도중에 강도를 만나 육혈포 세 발을 맞고 구사일생으로 살아나 이제야 겨우 귀국했는데 위협을 당한 뒤의 여독이 아직도 완전히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목은 업장이 가볍지 않아 뜻한 바나 하는 일마다 장애가 발생하여 거의 몸 둘 곳이 없는데, 해외에서 폭탄에 거의 죽을뻔하기까지 했으니 … 무릇 인간의 삶에 꿈이 아닌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반생의 삶에서 꿈이 어찌 이다지도 흥취하던 말입니까. 해몽 비결에서, “흉사가 극에 달하면 길하게 된다”고 하니 이것으로 자위할 뿐입니다. 언제 만나 뵈 수 있을까요? 이 글을 적을 즈음 아쉬움만 쌓입니다.¹⁸⁾

일제강점기 엄중했던 시기에 만해 한용운은 ‘독립운동’이라는 말을 우회적으로 ‘포교차 만주에 가던 도중’이라고 표현하여 육혈포를 맞고 구사일생 살아왔다는 힘들고 어려운 근황을 진응혜찬에게 허물없이 전한 것으로 보아 보통의 친분이 아니면 털어놓기 어려운 일이다.

한편 진응혜찬은 1905년 을사늑약의 비통함을 참지 못해 중국으로 망명 갔던 김택영(金澤榮)과¹⁹⁾ 1910년 한일병탄에 비분하여 ‘절명시’를 남기고 자결하였던 동향인 매천 황현(梅泉 黃玹)과²⁰⁾ 교분을 쌓고 지냈던 것 같다. 황현이 자결한 후 절친 김택영(金澤榮)이가 중국에서 『매천집(梅泉集)』과²¹⁾ 『매천집동간록』을²²⁾ 발간하기에 앞서 전남

18) BTN뉴스, 「만해스님 다큐멘터리 친필엽서 최초 공개」, 2021.4.19.

19) 김택영(金澤榮 1876~1942) : 호는 창강(滄江), 대한제국 중추원 서기관, 문헌비고속찬위원(文獻備考續撰委員), 학부(學部) 편집위원을 지내다가 1905년 을사보호조약을 통탄하며 중국으로 망명. 2018년 건국훈장 애국장 추서.

20) 매천 황현(梅泉 黃玹 1855.12.11~1910.9.10) : 일제 항거하며 대한제국을 지키려다가 1910년 8월 29일 경술국치를 맞게 되자, ‘절명시’를 유서로 남기고 9월 10일 자결. 1962년 건국훈장 독립장 추서.

구례에 거주하고 있던 황현의 제자 왕수환(王粹煥)에게 황현의 유고(遺稿)를 은밀히 보내 진응혜찬에게 친히 검독(檢讀)해 줄 것을 부탁한 적이 있었다. 유고를 은밀하게 보낸 이유는 내용 중에 한말의 비운과 일제에 항거하는 예리한 비평의 심정을 담은 시문집이었기 때문이다. <사진 5>는 김택영이 보낸 황현의 유고를 검독하고 나서 진응혜찬이 왕석환에게 답신한 서신이다.

서신의 날짜 12월 22일은 1910년이다. 『매천집』이 1911년 11월 20일에 발행되었기 때문이다. 황현의 『매천집』은 총 9권의 방대한 시문집으로 그중 원집 7권은 1911년에 발행된 것으로 그 속에는 한말의 풍운과 일제에 항거하는 예리한 비평의 심정을 담은 시문들이 포함되어 있다.

獲承 示及喜慰慰 因審歲暮 體履吉安 尤切賀祝 貧道猶茲煩惱未斷而已 就控昂金進少 猶多愧赧耳 覽讀貴發文與金滄江募刊記 靡不美見矣 然隆熙紀元之五年之言 似有諱觸也 若刊集中入此文同刊 而有此等語 則發行上 應有障礙矣 諒之焉 姓名 籍貫 住地 禪號 別紙樣去都納焉。餘不備謝 雅鑒。十二月二十二日 貧道 陳震應。王粹煥氏 座下

보내주신 편지를 보니 기쁘고 후련하며 세밑에 체리(體履)가 좋고 편안하시니 더욱 축하드립니다. 소송은 아직도 이 번뇌를 끊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드릴 말씀은 금전을 우러르고 적은 이익에 나아감은 더욱이 부끄러움이 될 뿐이니, 귀하께서 보낸 글과 창강 김택영의 『매천집모간기』를 훑어보니 좋지 않은 구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隆熙紀元之五年’의 말은 피해야 될 듯합니다. 만약 간행하는 문집에 이 글이 『매천집동간록』에 들어가 함께 간행되거나 이와 같은 말이 있다면 발행 상에 마땅히 방해가 될 듯하니 헤아려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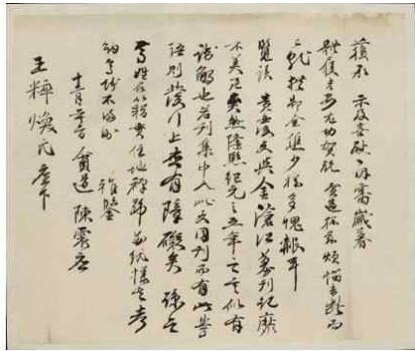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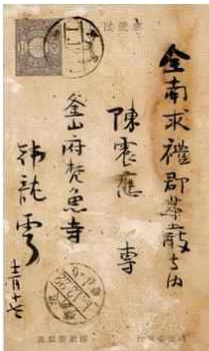
21) 1911년 11월 20일 김택영(金澤榮)의 편집으로 중국 상해에서 7권 3책으로 간행.

22) 한국고전번역원, 『황매천인사관련 문목취편(文墨萃編)』 상권에 ‘김택영모간기’가 있음.

성명 본적 주소 선호(禪號)는 별도의 종잇장에 보냅니다. 이만 줄이오니
보아 주십시오.

12월 22일 빈도(승려) 진진응
왕수환씨 좌하²³⁾

진응혜찬은 백초월(白初月), 김포광(金包光)과도 항일 교분이 두터웠던 것 같다. 그가 화엄사 주지로 주석할 때 스승 호은문성(虎隱文性)이 입적하자, 1919년 2월 21일 호은대율사비(虎隱大律師碑)를 건립하였는데 비석 3면의 시주자 이름에 백초월(白初月), 김포광(金包光)도 새겨진 것을 보면 서로 각별한 사이였음을 알 수 있다. 진응혜찬의 일제강점기 수행 이력을 몇 마디로 요약한다면, ‘대강백’, ‘임제종 설립 추진’, ‘화엄사 사격운동 주역’, ‘항일운동 승려’라고 할 것이다.



<사진 4> 만해 한용운의 친필 엽서 <사진 5> 매천집 검독 관련 왕석환에게 보낸 서신

3) 남원 선원사 시왕도의 증명법사

남원 선원사 시왕도가 주목을 받은 것은 태극기가 그려진 것과 더불어 진응혜찬이 증명하였기 때문이다. 전라남도 화엄사 주지 진응혜찬이

23) 필자가 경북 고전번역연구원에 의뢰하여 탈초·번역한 자료임.

전라북도 남원 선원사 시왕도의 증명법사가 되었을까 하는 의문도 있겠지만 그 답은 다음과 같이 풀린다. 첫 번째는 남원 선원사 주지 수룡기선과의 각별한 사이 때문이다. 그와 같은 사실은 화엄사 호은대율사 비 3면에 새겨진 시주자 중 ‘禪院寺 蔡水龍’의 이름이 말해주고 있다. 두 번째는 진응혜찬의 출생지가 남원이라는 연고성이다. 1873년 출생 당시에는 ‘전라도 남원부 소의방 대전리’이었다. 그 후 1896년 8월 4일 칙령 제36호에 의해 ‘전라북도 남원군 소의면 대전리’로, 1906년 칙령 제49호에 의거 ‘전라남도 구례군 광의면 대전리’로 변경되었다.

남원 선원사 주지 수룡기선은 진응혜찬과 각별한 사이인데다가 서로 남원의 연고성을 지니고 있었다. 때문에 1917년 9월부터 화엄사 주지 박포월이 사직을 상신하고 후임으로 진응혜찬을 인가 요청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진응혜찬을 친히 방문하여 시왕도 증명 법사로 모시겠다고 간청하자 이에 쾌히 승낙하였을 것이다. 진응혜찬은 1917년 11월14일 주지 인가를 받았다.

2. 화승 만총

본 연구를 통해 밝혀진 것은 불화에 태극기를 그린 화승은 유일하게 만총이었다. 만총이 남원 선원사의 시왕도를 조성하지 않았다면 보통 불화처럼 인식되어 이처럼 주목받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아쉬운 것은 만총에 대한 생몰연대가 미상이란 점이다. 다만 스승은 송광사 수화 승인 봉린(鳳麟)이었고,²⁴⁾ 1901년 이후 1929년까지 8점이라는 적은 수의 작품에 수화승(首畫僧)의 책임을 맡고 있는 만총은 일찍이 수화승 ‘문성·약효·용준·정연’ 아래 참여하여 출초(出草) 역할을 맡아 오면서 실력을 인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²⁵⁾ 화승 만총의 이름이 처음

24) 국립문화재연구소, 앞의 책 상권, 2011, p.644.

25) 고승희, 「화승 ‘춘화당 만총(春花堂 萬聰)’ 불화에 대한 연구」, 『미술문화연구』 제25호, 2023, p.68.

등장한 것은 1893년 보조 화승으로 전라북도 천황사 삼세불도(三世佛圖)를 조성할 때이고, 마지막으로 기록된 것은 1929년 전라북도 정읍 옥천사의 시왕도와 신중도와 현왕도이다.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전반까지 주로 충청도(충청남도)와 전라도(전라북도) 지역에서 ‘萬聰’ ‘萬總’ ‘万摠’ ‘万聰’ 이름으로 약 36여 년 동안 활동하였고, 활동 초기에는 약효가 주관한 불사에 활발하게 참여하다가, 1915년부터는 수화승이 되어 적극적으로 불화 제작에 참여하여, 불도·삼세불도·석가모니불도·아미타불도·신중도·사천왕도·칠성도·독성도·산신도·현왕도 등 다양한 장르의 불화를 남겼다.

1910년부터는 청신사(淸信士)·신사만총(信士万聰)·신사 이춘화(信士李春花) 등으로 알리기도 하였고, 불화에 화삼(化三)이란 이름이 나타나는데 만총과 동일인이란 견해도 있다.²⁶⁾ 화삼이 동일인이라면 더 증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심층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1907년까지는 비구(比丘) 만총이라고 하였다가, 1907년 신원사 석가모니불도의 화기에 신사만총(信士 万聰)으로 기록된 것을 보고 이즈음에 환속한 것이 아닌가 추측한 사람²⁷⁾도 있다. 출초(出草)에도 능하였는데, 1893년 대둔산 석천암 아미타불도(경희대학교 소장), 1895년 공주 감사 대자암 16성중도와 신중도, 1897년 완주 위봉사 보광명전 삼세불후불도, 1898년 공주 동학사 신중도, 1907년 공주 신원사 대웅전의 신중도, 1923년 논산 쌍계사 대웅전 삼세불후불도와 신중도 등 8점이 있다.²⁸⁾

만총은 자기만의 화풍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테면 화면 구성의 서양화적 원근법이라든지, 바탕 처리 및 색채에서 바닥과 하늘을 토황 계열

26) 국립문화재연구소, 앞의 책 상권, 2011, p.644.

27) 위의 책과 같음.

28) 고승희, 앞의 책, p.70.

색상으로 동일하게 처리하여 온화한 느낌의 한난대비 효과와 화면이 넓어 보이는 면적대비 효과로 화면이 전반적으로 밝고 선명한 느낌을 주는 것이라 하겠다.²⁹⁾ 만총 명의로 조성된 시왕도는 남원 선원사 시왕도와 1929년 정읍 옥천사 명부전의 시왕도 등 2점이다. 정읍 옥천사의 시왕도 경우 제5번 시왕(추정)의 관모에 태극 문양이 그려져 있다. 만총의 주요 작품은 다음과 같다.³⁰⁾

천황사 대웅전 삼세불도(1893, 전라북도 진안군 천황사 소장), 석천사 아미타불도(1893, 경희대학교 박물관 소장), 갑사 대웅전 십육성중도(1895, 충청남도 공주시 갑사 소장), 갑사 대성암 신중도(1895, 충청남도 공주시 갑사 소장), 위봉사 보광명전 신중도(1896, 전라북도 완주시 위봉사 소장), 위봉사 보광명전 삼세불도(1897, 전라북도 완주시 위봉사 소장), 동학사 약사불도(1898, 충청남도 공주시 동학사 소장), 동학사 아미타불도(1898, 충청남도 공주시 동학사 소장), 동학사 신중도(1898, 충청남도 공주시 동학사 소장). 동학사 현왕도(1898, 충청남도 공주시 동학사 소장), 정혜암 신중도(1901, 충청남도 보령시 중대암 소장), 신원사 대웅전 석가모니불도(1907, 충청남도 공주시 신원사 소장), 신원사 대웅전 신중도(1907, 충청남도 공주시 신원사 소장), 신원사 칠성도(1907, 충청남도 공주시 신원사 소장), 승림사 보광전 삼세불도(1913, 전라북도 익산시 승림사 소장), 선원사 법당 비로사나불도(1917, 전라북도 남원시 선원사 소장), 선원사 명부전 지장도(1917, 전라북도 남원시 선원사 소장), 선원사 대웅전 신중도(1917, 전라북도 남원시 선원사 소장), 쌍계사 대웅전 삼세불도(1923, 충청남도 논산시 쌍계사 소장), 쌍계사 대웅전 신중도(1923, 충청남도 논산시 쌍계사 소장), 옥천사 명부전 지장보살도(1929, 전라북도 정읍시 옥천사 소장), 옥천사 법당 현왕도(1929, 전라북도 정읍시 옥천사 소장), 옥천사 법당

29) _____, 위의 책, p.78.

30) 국립문화재연구소, 앞의 책 상권, 2011, pp.644-645.

신중도(1929, 전라북도 정읍시 옥천사 소장)

IV. 태극기와 시왕도 변성대왕 관모

1. 태극기의 유래와 연혁

남원 선원사의 시왕도가 비상한 이목을 끌고 인구회자된 것은 관모에 그려진 태극기 때문이다. 태극기란 “중양에는 청색과 홍색으로 색칠을 하고 네 모서리에 건(乾)·곤(坤)·감(坎)·리(離)의 사괘(四卦)를 그렸으며, 이것은 이전에 고종 임금께 명령을 받은 적 있다”³¹⁾와 같이 최초부터 태극문양과 4괘로 구성되어 있다. 태극기가 국기로 정해진 유래는 1882년 9월에 임오군란 수습차 고종 임금이 긴급하게 박영효를 특명전권대신 겸 수신사로 임명하고 일본에 파견하면서 국기 복안을 주고 그려 사용하도록 한 후 1883년 1월 27일(양력 3월 6일) 전국적으로 사용하도록 공포하면서부터였다.³²⁾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에서 아뢰기를, “국기(國旗)를 이미 제정하였으니 팔도(八道)와 사도(四都)에 행회(行會)하여 다 알고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이 기록은 조선왕조의 실록으로 현재로선 ‘고종 창제설’로써 정설이다. 향간에 1882년 5월 22일 조미조약 때 긴급히 국기가 필요해 전권부관(全權副官) 김홍집이가 통역원 이용준에게 시켜서 만들도록 하여 사용했다는 말도 있는데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추측설이다. 이 발단은 1882년 7월 28일 미해군성 항해국에서 발행한 『해상국가들의 깃발 제

31) 송명호, 「태극기문화재 활용방안」, 『대각사상』 제18집, 2012, p.430.

32) 조선왕조실록, 『고종실록 20권』, 1883.1.27(음력).

5집』(Flags of Maritime Nations, Fifth Edition)이 2004년 국내에 소개되면서부터였다.³³⁾ 이 책 41쪽에 태극기가 실려 있고, 발행 시기가 조미조약 체결 후 7월 28일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조미조약 때 계양하였다는 문헌은 아직 없다. 만약 조미조약 때 태극기를 사용하였다면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그 당시 조선·미국·청나라의 외교문서는³⁴⁾ 물론 김홍집의 일기 『이정학재일록(以政學齋日錄)』³⁵⁾ 조차에도 그런 기록은 없다. 절대왕권 시대에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국기를 최초로 제작하는 국가의 대업으로 왕의 승낙도 없이 임기응변식으로 처리했다는 것은 이치가 안 맞다.³⁶⁾

고종 창제설이든 추측설이든 최초 태극기의 실물은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 다만 최초 태극기일 것이라고 추정된 그림은 1882년 박영효 수신사가 일본에서 임오군란 수습 중이던 1882년 11월 1일 일본 주재 영국공사 헤리 파크스(Sir Harrys parkes)가 외무성 대보 요시다 키요나리(吉田清成)로부터 전달 받은 천연색 태극기 그림이다.<사진 6>

1882~1883년의 최초 태극기와 가장 근접한 실물은 보물로 지정된 1890년의 테니(O.N.Denny) 태극기이다.<사진 7> 최초의 태극기는 1883년 1월 27일(양력 3월 6일) 전국적으로 사용하라고 공표했다지만 다량 제작·인쇄 등 배포·보급 방법이 없어 최초의 태극기를 보았다는 사람도 드문 등큰 실효를 얻지는 못한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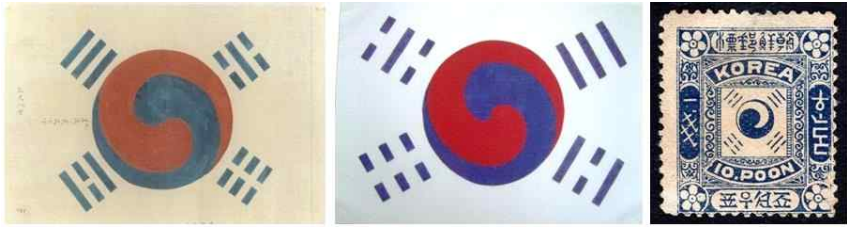
그 후 우편제도가 도입되면서 1895년에 태극기우표를 발행하였는데, 통신 수단이라는 전달성 때문에 파급 효과가 컸고, 국민들은 이때부터 국기 모양을 알게 되었다.<사진 8>

33) 송명호, 『국가유산 태극기』, 유페이퍼, 2024, p.23.

34) 동북아역사재단, 『근대한국외교문서』 제4권, 2012, pp.424-429.

35) 김홍집의 일기로 1867년(고종 4) 2월 23일~1884년(고종 21) 10월 1일 까지 기록임.

36) 송명호, 앞의 책, p.25.



<사진 6> 1882년 파크스 태극기 <사진 7> 1890년 데니 태극기 <사진 8> 태극기우표

세계 최초의 우표는 1840년 5월 1일 영국에서 발행되었다. 조선에서 우표가 도입된 것은 1884년이지만, 태극기우표가 발행된 것은 1895년 7월 22일이었다. 미국에서 인쇄하여 발행하였는데, 액면에 따라 오피온·한돈·두돈 오피온·5돈 등 4종류이다. 네 귀퉁이에는 오얏꽃(李花) 무늬를 그려 넣었고, 중앙에 태극기를 도안하였다. 4괘는 바탕면 상단에 이괘(☰)와 건괘(☳), 하단에 곤괘(☵)와 감괘(☶)를 배치하였고 태극의 회전은 우선 방향이다. 태극기 바로 위에는 'KOREA'와 '朝鮮郵票', 밑에는 액면가와 '조선우표'라고 인쇄되어 있다. 1895년부터 발행된 태극기우표는 국기의 표본처럼 15년 동안 사용하다가 1910년 8월 29일 경술국치 이후 사라지고 말았다.

대한제국은 일제에 의해 국권을 상실하고, 일제는 대한제국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일본의 축일(祭日) 및 축제 휴일을 칙령으로 공포하여, 관공서, 학교, 사찰은 물론 농촌 마을까지도 일장기를 보급하여 의무적으로 게양토록 하였다.

칙령19호의 祭日 및 축제 휴일³⁷⁾

원시제 1월 3일, 신년연회 1월 5일, 기원절 2월 11일, 신무천황제 4월 3일, 명치천황제 7월 31일, 천장절 8월 3일, 신상(神嘗祭) 10월 17일, 신상제(新嘗祭) 11월 23일, 춘계황령제 춘분일, 추계황령제 추분일.

37)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조선총독부 칙령』 제19호, 1912.9.3.

그런 가운데서도 국민들은 국권을 되찾는 독립의지를 불태울 때마다 장롱에 숨겨둔 빛바랜 편지 봉투를 꺼내어 태극기우표를 보면서 태극기를 그리기도 하고 만들기도 하였다. 태극기우표 형식의 태극기는 1917년 남원 선원사 시왕도 변성대왕 관모뿐만 아니라 1919년 3·1독립만세 운동 때 전 국민들이 그러서 사용하였다. 그 후 중국으로 망명 갔던 항일 애국지사들이 1919년 4월 11일 임시의정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수립하고 곧바로 국기를 만들 때도 그 형식으로 제작·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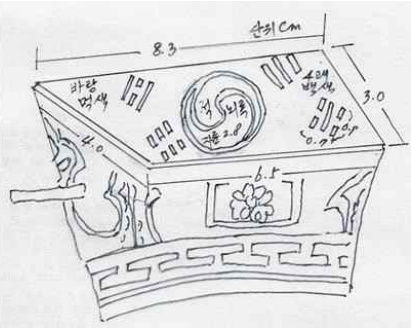
2. 변성대왕 관모의 태극기

1) 변성대왕 관모의 실측

실측은 필자가 2023년 2월 6일 남원 선원사를 답사하여 작도하였다. 태극기는 시왕도 중앙의 지장보살 좌측 제6대왕인 변성대왕의 관모에 그려져 있었다.<사진 9> 시왕도는 지장보살의 뒤에 걸어진 면직류 후불탱화로 떼어 낼 수 없어서 걸어진 상태로 실측하였다. 유물의 오염이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미리 준비한 투명 셀로판지를 그 위에 덮고 장갑 낀 손으로 30cm 자를 사용하여 실측하였다. 관모는 <사진 10>과 같이 가로 8.3cm, 세로 3cm이고, 그 안의 태극 문양 지름은 2.8cm로 가까이 들여다보기 전에는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아주 작았다.

보편적으로 태극은 빨강과 파랑으로 표현되는데 관모의 태극은 빨강과 녹색으로 채색되어 있다. 관모의 바탕이 검정색이기 때문에 명암대조기법으로 선이나 형태를 선명하게 구별시켰다. 화려한 입체감이 마치 수채화 같은 느낌이다. 태극문양 밖 4괘는 백색이다. 이것 역시 명암대조 기법이다. 4괘는 모서리에 빗금 모양으로 그려 대각선으로 배치되어 있다. 4괘는 반드시 건·곤·감·리로 빗금 모양 대각선 배치의 정형4괘(定型四掛)라야 하는데 최초의 태극기 태생부터 갖추어진 불변형식

이다. 4괘 위치는 제도화되지 않은 시대에 다르게 배치한 경우는 있었지만, 빗금 모양과 대각선 배치 형식이라야 한다. 간혹 4괘의 모양을 수평 또는 수직으로 그리거나 열십자(十)로 배치된 것을 볼 수 있는데 모두 비정형적이다.



<사진 9> 변성대왕 관모 위 태극기 근경 <사진 10> 변성대왕 관모 태극기 현장 실측

시왕도 관모의 상단 왼쪽에 이괘(☶) 오른쪽에 건괘(☳), 하단 왼쪽에 곤괘(☵) 오른쪽에 감괘(☱)가 빗금 모양 대각선으로 그려져 있다. 이런 배치 형식은 1895년 태극기우표에 근거한 것이다.

2) 변성대왕 관모의 태극기

시왕이란 불교 경전에 등장한 지옥의 신들로서, 명계(冥界)에 끌려온 사자(死者)에 대한 죄의 경중(輕重)과 심판을 다루는 10명의 대왕을 말하는데 <표 2>와 같다.

남원 선원사 시왕도에 태극기가 그려진 관모는 변성대왕이다. 변성대왕은 도산지옥을 관장하고, 칼로써 남을 괴롭힌 죄인을 심판하여 그 죄와 똑같이 칼로 된 길을 걷게 함으로써 고통을 주는 지옥의 제6번째 왕이다. 일제강점기의 엄중한 시기에 시왕도를 조성하면서 변성대왕 관

모에 태극기를 그린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감히 생각조차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때는 불화 한 점이라도 조성하려면 사찰령 시행규칙 제 7조에 의해 반드시 신고를 하고 검열과 감시를 받아야만 했다.

사찰령시행규칙 제7조³⁸⁾

주지는 사찰에 속하는 토지·삼림·건물·불상·석물·고문서·고서화·범종·경권·불기·불구·기타 귀중품의 목록을 만들어 주지에 취직한 후 5개월 이내에 이를 조선총독에 제출해야 함. 전항의 재산에 증감 이동이 있을 때는 5일 이내에 이를 조선총독에게 신고해야 함.

만약에 들키기라도 했다면 일제의 시각에서 볼 때 사찰령법 위반과 국기 모독죄가 성립되어 모두 중죄의 처벌을 받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총은 변성대왕 관모에 고의적으로 태극기를 그려, 총칼로 대한제국을 멸망시킨 일본도 결국 총칼로 심판받을 것이라는 경고와 함께 항일정신을 표현하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38) 한국사데이터베이스, 한국근대사DB, 앞의 책, 제257호, 1911.7.8.

<표 2> 시왕과 심판 내용

번호	시왕명	관장 지옥명	지옥의 형벌
1	진관대왕	철정지옥	죄인을 눕히고 온 몸에 못질하여 고통을 줌
2	초강대왕	추장지옥	뱃속에서 오장육부를 꺼내어 고통을 줌
3	송계대왕	발설지옥	말로써 죄를 지은 죄인에게 혀를 길게 뽑아 그 위로 쟁기질하여 고통을 줌
4	오관대왕	확탕지옥	파게하거나 살생하고 고기를 먹은 죄인을 끓는 기름에 튀겨 고통을 줌
5	염라대왕	대애지옥	생명을 살상한 죄인을 돌질구에 넣고 디딜방아로 몸을 짓이겨 고통을 줌
6	변성대왕	도산지옥	칼로써 남을 괴롭힌 죄인에게 칼로 된 길을 걷게 하여 고통을 줌.
7	태산대왕	거해지옥	형틀에 몸을 묶고 톱으로 몸을 반으로 자르는 고통을 줌
8	평등대왕	협산지옥	간음 성폭행 등의 죄인을 첩로된 두 개의 산(山) 사이에 놓고 힘껏 조여 고통을 줌
9	도시대왕	한빙지옥	겁탈하고 도적질하여 남을 가난하게 한 죄인을 얼음산에 가둔 다음 추위와 동상으로 고통을 줌
10	오도전륜대왕	흑암지옥	거짓 가르침으로 사람을 현혹시킨 죄인을 진한 먹물 같은 어둠에 가둬 고통을 줌

남원 선원사의 시왕도 관모에 태극기가 그려진 과정을 다음과 같이 추정해 보았다. 사찰령시행규칙 제7조 “재산에 증감 이동이 있을 때는 5일 이내에 이를 조선총독에게 신고해야 함”이란 조항에 의거 전라북도 지사에게 신고하고, 낙성식날 참석·검열하여 줄 것도 요청하였으리라고 본다. 그런 다음 1917년 11월 5일부터 11월 17일까지 만총 화승과 상오·행은·봉인·명진·성열·법상 등 동참 화승에 의해 완성하였고, 진웅혜찬 등 다수의 불자와 전라북도 서기가 참석한 가운데 낙성식을 거행하였으리라고 추정할 수 있다. 그러고 나서 서기가 시왕도의 검열을 마치고 돌아간 다음에 만총과 진웅혜찬은 항일의 뜻을 모아 변성대

왕의 관모에다 태극기를 몰래 그릴 것을 작정하였으리라 본다. 이 과정에서 태극기의 유래를 해박하게 간파하고 있었던 진응혜찬은 주도적으로 태극의 모양과 4괘 배치 등을 만총에게 일러주고 그리도록 조언도 하였을 것이다.

이런 추정으로 완성된 시왕도는 대법당에 봉안하였고, 일제강점기 동안에는 감시의 눈을 피하기 위해 무독귀왕상으로 가려 놓았던 것이다.

그 후 광복이 되고 명부전으로 이전 봉안하였음에도 눈에 띄지 않다가 2023년 11월 1일에서야 발견되어 불교계와 역사학계로부터 비상한 주목을 받게 된 것이다.

3. 남원 선원사 시왕도의 평가

남원 선원사 시왕도의 의의는 엄혹한 일제강점기에 시왕도를 조성하면서 위험을 무릅쓰고 변성대왕 관모에 고의적으로 태극기를 몰래 그려 불교계의 항일 정신과 민족의 정체성을 극명하게 표현한 것이라 하겠다.

사찰에서 태극기 유물이 처음으로 발견된 것은 2009년 5월26일 서울 진관사에서 일장기 위에 4괘와 태극 문양을 덧칠한 실물 태극기이다. 진관사 태극기가 크게 주목받은 것은 사찰에서 실물 태극기가 최초로 발견되었다는 것과, 승려 인물 연구가로 정평이 높은 김광식 교수의 2002년의 「백초월 스님을 아십니까」 칼럼과,³⁹⁾ 2002년의 「백초월의 삶과 독립운동」 논문이 아마도 백초월이 그러한 태극기를 만들었을 것으로 비정하였기 때문이다.⁴⁰⁾

백초월의 제자로 지금까지 살아 있는 금봉 노스님(1919년생, 현재 91세)

39) 김광식, 『불교신문』, 「백초월 스님을 아십니까」, 2002.2.25.

40) 김광식, 『불교학보』 제39집,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2002.

을 면담한 직후에 자료를 숨겨 놓은 당사자가 백초월임을 거듭하여 확신하였다.⁴¹⁾

진관사 태극기는 2010년 2월25일 국가등록 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다가 2021년 10월 25일 보물로 지정되었다. 진관사 태극기와 남원 선원사 시왕도의 공통점은 시기가 일제강점기란 점, 발견 장소가 사찰이란 점, 목적과 의의가 항일 정신과 민족의 정체성이란 점, 주도 인물이 항일 승려이었다는 점이다.

이렇듯 남원 선원사 시왕도 역시 역사성과 희귀성으로 보아 국가유산으로써 가치가 충분하다고 평가된다. 더불어 남원 선원사 시왕도에 대한 과학적 측면의 진위와 가치를 확인하기 위해 공주대학교 문화재 보존과학과에서 안료 분석 및 채색 기법을 해석하여 학회에 논문까지 발표한 것도 그 진위와 가치를 과학적으로 입증한 것이라 하겠다. 그 보고서에 의하면 시왕도의 태극기가 그려진 관모의 붓은 불화 조성 당시 원통형 붓이 아닌 직각으로 이루어진 붓을 사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관모에 그려진 태극기의 물감을 분석한 결과 불화의 다른 부분에 사용했던 물감과 동일하고, 태극기가 그려진 시기도 불화 조성 시기와 일치한다고 하였다.⁴²⁾

V. 맺음말

위와 같이 남원 선원사의 시왕도 관모에 그려진 태극기의 시대적 배경과 의의를 살펴보았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론을 정리하고자 한다.

41) 김광식, 「백초월의 항일운동과 진관사」, 『한국 독립운동과 진관사』, 진관사, 2009, p.37.

42) 정동희·이찬희, 『보존학회지』 제39권 제3호,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2023, pp.269-287.

첫째, 정형 4괘와 태극 문양을 갖춘 태극기 그림이 시왕도에서 발견된 것은 남원 선원사가 최초이다. 실로 1917년에 남원 선원사에서 조성하여 105년 만에 발견된 것이다. 조성 시기가 1911년 조선총독부 사찰령(寺刹令)에 의해 불교가 탄압당하고, 1912년 조선총독부칙령 제19호에 의해 오로지 일장기만을 게양하도록 강제함으로써 태극기가 말살당하였던 엄혹한 일제강점기였다.

둘째, 화승 만총과 증명법사 진응혜찬이 뜻을 같이하여 위험을 무릅쓰고 시왕도의 관모에 고의적으로 태극기를 몰래 그려 불교계의 항일 정신과 민족의 정체성을 표현하였다.

셋째, 보존과학적 방법으로 물감분석 및 채색 기법을 해석한 결과 1917년 시대의 물감과 채색 기법이 동일한 것으로 입증하였다.

향후 대책과 활용 방안으로는 첫째, 시왕도에 태극기가 그려진 희귀성과 가치, 진응혜찬이 ‘증명’한 점을 고려하여 국가유산으로 보존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불교회화 측면, 남원의 의병 활동과 항일정신을 일깨우는 역사적 측면, 일제강점기 동안 태극기의 변천사까지 아우르는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시왕들의 독특한 캐릭터를 소재로 불교 만화·애니메이션·영화·소설, 시왕도 태극기 스토리텔링 등 다양한 콘텐츠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 한다.

끝으로 시왕도에 그려진 태극기 연구가 남원 선원사에만 집중되어 한계가 있었음을 밝혀둔다. 따라서 불화 중에 그러한 사례가 더 있는지에 대한 조사와 연구는 앞으로의 과제로 남겨둔다.

참고문헌

<도서>

- 국립문화재연구소, 『한국역대서화가사전』 상·하권, 2011.
김정희, 『불화』, 돌베개, 2009.
김홍집, 『以政學齋日錄』(필사본),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1991.
동북아역사재단, 『근대한국외교문서』 제4권, 2012.
송천 스님 외, 『한국의 불화 화기집』, 도서출판 정보문화재연구원, 2011.
송명호, 『국가유산 태극기』, 유페이퍼, 2024.

<논문>

- 고승희, 「화승 ‘춘화당 만총(春花堂 萬聰)’ 불화에 대한 연구」, 『미술문화 연구』 제25호, 2023.
김광식, 「백초월의 삶과 독립운동」, 『불교학보』 제39집, 동국대학교 불교 문화연구원, 2002.
_____, 「백초월의 항일운동과 진관사」, 『한국 독립운동과 진관사』, 진관사, 2009.
_____, 「근현대 화엄사의 사격과 진진웅·이동헌」, 『대각사상』 제18집, 대각사상연구원, 2012.
송명호, 「태극기문화재 활용방안」, 『대각사상』 제18집, 대각사상연구원, 2012.
정동희·이찬희, 『보존학회지』 제39권 제3호,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2023.

<포털 사이트>

- 조선왕조실록, 『세종실록 88권』, 1440년 1월 25일(음력).
_____, 『고종실록 20권』, 1883년 1월 27(음력).
한국사데이터베이스, 「한국근대사료DB」, 조선총독부관보.
한국고전번역원, 『황매천인사관련 문목취편(文墨萃編)』 상권.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조선총독부 칙령』 제19호, 1912.9.3.

<언론·웹사이트>

- 『동아일보』, 「불교 탕화에 몰래 그렸다」, 문화면, 2023.2.22.

- 『불교신문』, 「백초월 스님을 아십니까」, 2002.2.25.
- 『불교신문』, 「기획연재, 21 진응혜찬」, 2008.7.2.
- 『법보신문』, 「남원 선원사서 ‘항일독립 의지’ 담긴 태극기 그림 발견」, 2023.2.21.
- 연합뉴스 TV, 「일제강점기 탕화속 그려진 태극기, 항일운동 일환」, 2023.2.21.
- 『조선일보』, 「불화속 ‘숨은 태극기’ 105년만에 발견」, 문화면, 2023.2.22.
- 『한겨레신문』, 「선원사 불화서 태극기 그림 발견」, 사회종교, 2023.2.22.
- BBS News, 「100년 넘은 탕화 속 태극기 확인 ... 불교 항일정신 담겨」, 2023.2.22.
- BTN뉴스, 「만해스님 다큐멘터리 친필엽서 최초 공개」, 2021.4.19.
- MBC, 「불화에서 태극기가 처음 발견」, 오후 7시 뉴스투데이, 2023.2.22.

Abstract

A Study on the Taegeukgi of the Ten Kings of Hell painting at Temple in
Namwon Seonwonsa

Song, Myung-ho
(Taegeukgi expert. Former Korea Heartage Service Specialist)

This paper is a study on the Taegeukgi (Korean flag) depicted in the Ten Kings of Hell painting of Seonwonsa Temple in Namwon. Ten Kings of Hell painting is a type of Buddhist painting that depicts a scene in which a person goes to the netherworld after death and judges the world of hell to determine whether or not they will go to paradise or hell by finding the sins they committed before they die.

This Ten Kings of Hell painting was created in 1917 and was discovered after 105 years, and is the first Buddhist painting depicting Taegeukgi with the four standard ruled lines and the Tai Chi pattern. Taegeukgi was born in September 1882 and was announced by King Gojong on March 6, 1883, and is a nickname that has been sung since the Joseon Dynasty. Unfortunately, Taegeukgi suffered extermination and suffering during the 36 years of Japanese colonial rule, along with the suppression of Buddhism.

During this dark period of history, Namwon Seonwonsa Temple created the Ten Kings of Hell painting and secretly drew Taegeukgi on ByeonseongDaewang's hat to express his will for independence. The hell presided over by ByeonseongDaewang is the Dosan hell, which is the king of hell who tortures sinners who have tormented others with a sword by making them walk the path of the sword and inflicting pain. In other words, the sin of usurping someone else's country with weapons will

surely be punished with weapons.

Thus, in August 1945, Japan, the war maniac in Asia, surrendered to the Allies after being punished by an atomic bomb that humanity had never experienced. The great significance of this Ten Kings of Hell painting is that it was painted by Manchong, who is well-known as the successor of Buddhist painting in the early modern century, and endorsed by Jineunghyechan, who was revered as a great Buddhist teacher and anti-Japanese monk.

In addition,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f pigments and coloring techniques using conservation scientific methods, it was proved that the pigments and coloring techniques of the Ten Kings of Hell painting painted in 1917 were the same. First, it was argued that Taegeukgi should be preserved as a Korea Heritage in consideration of the rarity and value of Taegeukgi in the Kings of Hell painting and the fact that Jineunghyechan guaranteed it. Second, he emphasized the need to study more diligently the Buddhist pictorial aspects, the historical aspects that informed the anti-Japanese military activities and the spirit of the independence movement in Namwon, and the history of Taegeukgi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Third, he suggested the need to develop various contents based on the unique characters of Ten Kings of Hell, such as Buddhist comics, anime, movies, novels, and Taegeukgi storytelling depicted in Ten Kings of Hell paintings.

Key words

Namwon Seonwonsa Temple, Ten Kings of Hell painting, Siwangdo, Taegeukgi, Jineunghyechan, Temple cultural heritage.

논문투고일 : '24. 10. 7. 심사완료일 : '24. 11. 27. 게재확정일 : '24. 12. 4.